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①	2	⑤	3	③	4	②	5	⑤
6	②	7	①	8	②	9	①	10	③
11	③	12	①	13	④	14	①	15	①
16	④	17	⑤	18	⑤	19	④	20	③
21	②	22	①	23	②	24	③	25	④
26	②	27	②	28	④	29	④	30	④
31	⑤	32	⑤	33	②	34	⑤		

해설

[1~3] (독서 이론) 이순영 외, 『독서 교육론』

문자를 해독하기 위한 능력으로는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등이 있다. 읽기 유창성은 음운 인식과 단어 재인을 바탕으로 발달된다.

음운 인식은 하나의 음절이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절이 음운에 따라 달리 발음될 수 있음을 아는 능력이다. 단어 재인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부호를 독자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중 특정 단어의 의미, 발음과 같은 정보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읽기 유창성은 큰 노력 없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확인하며,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독자는 의미를 구성하는 독해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을 잘 갖춰야 한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에서 읽기 유창성은 주로 낭독의 정확성과 속도로 확인하는데, 속도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은 단어의 수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독자가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으면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읽기 유창성을 갖춘 독자는 읽기 유창성을 갖추지 않은 독자보다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주의를 더 기울여 집중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서 단어 재인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부호를 독자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중 특정 단어의 의미, 발음과 같은 정보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어 재인을 갖춘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시각적으로 제시되었을 때 각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

3.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4문단에서 ‘대치’는 음절을 다른 음절로 바꾸어 낭독하는 오류인데, 대치하여 낭독한 단어가 어휘적 의미가 없는 경우는 ‘무의미 대치’ 오류라고 하였다. ㉠ ‘줍이’의 정확한 발음에 ‘과’를 추가하여 발음한 것은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음절을 추가하여 낭독하는 오류인 ‘첨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4문단에서 오류 유형 중 ‘반복’은 음절을 반복하여 낭독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 ‘하루는’의 정확한 발음에 ‘하’를 반복하여 발음한 것은 반복 오류에 해당한다.

[4~7] (기술) 박정기, 『리튬 이차 전지의 원리 및 응용』

‘리튬 이온 이차 전지’는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양(+)극과 음(-)극의 재료로 하여 충·방전을 반복할 수 있게 한 전지이다. ‘리튬 이온 이차 전지’의 양(+)극의 활물질로 많이 쓰이는 층상 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은 금속 이온과 산소 이온이 결합한 구조물에 리튬 이온이 삽입되어 있는 고체 화합물로 산소 이온들이 배열되어 충을 이루고 산소 이온들의 층과 층 사이에 금속 이온 층과 리튬 이온 층이 교대로 있는 구조이다. 전지를 충전할 때 층상 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에서 리튬 이온이 층 속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지게 되는 탈리가 일어나고, 방전될 때는 리튬 이온이 삽입된다.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리튬 금속 산화물을 만들 때는 코발트, 니켈, 망가니즈 등의 금속이 활용된다. 코발트를 사용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지만 고가이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은 문제가 있어 코발트 함량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니켈과 망가니즈를 섞어서 만든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이 제안되었다.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은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의 함량비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최근에는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의 단점을 보완한 활물질들이 나오고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4문단에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전지가 충전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리튬 이온의 양에서 절반 이상의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면, 충을 이루고 있던 산소 이온이 기체로 배출되어 구조가 붕괴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의 리튬 이온 양이 본래의 절반 넘게 유지되면 구조가 붕괴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6문단에서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에 다른 금속인 알루미늄을 조합하여,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의 단점을 보완한 양극 활물질이 이차 전지에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활물질은 전지의 충·방전 시 양(+)극과 음(-)극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양극 활물질로 사용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이론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양극 활물질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고 하였다.

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3문단에서 전지를 충전할 때, 양극 활물질로 쓰인 층상 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에서 리튬 이온이 층 속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지게 되는 탈리가 일어나고, 방전될 때는 리튬 이온이 삽입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방전 시 리튬 이온이 따로 떨어지게 되고, 충전 시 리튬 이온이 삽입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3문단에서 양극 활물질에 있는 리튬 이온이 모두 탈리되었을 때의 단위 무게당 전하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을 양극 활물질의 이론 용량이라고 하였다.

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5문단에서 활물질인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은 니켈 함량비가 높을수록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늘어나지만, 니켈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충·방전 중 산소를 비롯한 기체가 발생하고 구조가 무너져 전지의 수명이 저하되기 쉽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조의 변형을 억제하는 망가니즈의 함량비를 늘리면 전지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코발트와 비교했을 때 니켈과 망가니즈가 상대적으로 저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A사가 구매 비용보다 전지의 수명을 더 중요시한다면, NCM433과 NCM811 중 상대적으로 니켈

의 함량비가 높은 NCM811은 선정되지 않을 것이다.

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나오다’는 상품 따위가 산출되다의 의미이다.

①의 ‘나오다’는 ㉡와 마찬가지로 상품이 산출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②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흐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떠한 곳에 모습이 나타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목적인 것이 눈에 띄게 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11] (사회) 송덕수, 『신민법 강의』

상계란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하고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 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연대 채무에서와 같이 예외도 있다. 수동 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피상계자가 채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자동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지만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거나 특약을 통해 상계를 금지할 수도 있다. 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며, 상계를 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의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서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상계의 의사 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상계하려는 자가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9.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1문단에서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상계의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수동 채권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한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서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수동 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피상계자가 채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3문단에서 자동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고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는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3문단에서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처럼 수동 채권에 일정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상계가 금지된다고 하였다.

1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1문단에서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연대 채무 관계 내에서는 상계자가 자신의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병은 을의 동의가 없어도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4문단에서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의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인 2023년 9월 1일부터 상계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이때부터 대등액에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12~17] (인문 주제 통합) (가) 볼테르의 역사 철학, (나) 헤르더의 역사 철학

(가) 볼테르의 역사 철학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는 역사를 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역사의 동인을 신의 섭리로 보지 않고 이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문화를 이성 활동의 결과로 보고,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문화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성의 발전을 보여 주려 했다. 그는 이성을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로 보았으며 역사 서술에서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역사를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4개의 시대 중 루이 14세의 시대가 이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은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직선적 역사 발전관을 보여 주었으며, 인간의 이성을 척도로 각 시대를 평가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하였다.

(나) 헤르더의 역사 철학

헤르더는 독일의 낭만주의 역사 철학자로 개체성과 나선형 발전 이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가 주장한 개체성은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하며 각 민족은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했다. 그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중세 시대를 계몽사상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을 비판했다. 역사의 파악과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를 민족으로 본 헤르더는 19세기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12.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한다.

(가)에서는 볼테르의 역사 철학과 역사 서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나)에서는 헤르더의 역사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면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직선적 역사 발전관에 대한 헤르더의 비판적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볼테르의 역사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대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응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볼테르의 역사 철학에 대해, (나)에서는 헤르더의 역사 철학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가)에서는 볼테르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1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나)의 헤르더는 개체성을 주장하였으며, 그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보편주의적 관점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르더가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을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볼테르는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했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침투해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가)에 따르면 직선적 역사관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은 이러한 직선적 역사관이다. 그는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볼테르는 역사를 신화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15.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볼테르는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했으며, 4문단을 통해 루이 14세 시대에 대해 볼테르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개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보다 문화가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헤르더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한다. 그는 개체성의 입장에서 여러 민족들 각각의 역사적 시대는 모든 민족의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볼테르의 역사 철학은 진보적 역사 발전관이다. 진보적 역사 발전관에 따르면 이성의 발전이 있으며, 퇴보는 없다. 그러므로 볼테르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마에 의해 멸망된 것을 문화의 퇴보가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⑤ (나)에서 볼테르는 역사 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했다고 했으며 헤르더는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중세 시대는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맥락적 의미를 이해한다.

㉔의 ‘기여했다’는 ‘기여하다’의 과거형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맥락적 의미에 따라 ‘이바지했다고’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18~23] (갈래 복합) (가) 임유후, 「목동가」, (나) 장경세, 「강호연군가」, (다) 장유, 「방언」

(가) 임유후, 「목동가」

「목동가」는 임유후(1601~1673)가 지은 문답체 강호가사로 「목동문답가」, 「목우가」 등으로도 불린다. 목동은 사대부들이 문학에서 즐겨 다룬 소재 중 하나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상징한다. 목동처럼 탈속과 무욕의 삶을 상징하는 고전 문학의 또 다른 소재에 초부(나무꾼), 어부도 있다. 작품은 크게 전반부의 ‘묻는 노래’와 후반부의 ‘답하는 노래’로 나뉘며, ‘묻는 노래’에는 사대부로 추정되는 화자가 등장해 목동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노

래’에는 목동이 등장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 준다. ‘묻는 노래’의 화자는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제제민의 삶을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답하는 노래’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강조한다. 두 화자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주장하지만, 작자는 작품을 통해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묻지 않고, 그 둘이 모두 사대부가 자녀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아가고 때를 못 만나면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며 산다는, 사대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두 화자의 목소리로 진술한 작품이 바로 「목동가」인 것이다.

(나) 장경세, 「강호연군가」

장경세(1547~1615)가 이항의 「도산십이곡」의 영향을 받아 지은 연시조로 총 12수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전반적인 주제 의식에 따라 앞의 6수와 뒤의 6수로 대별되는데 앞의 6수는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반면, 뒤의 6수는 올바른 학문과 삶의 자세를 노래한다. 이 중 지문에 실린 <제2수>는 정치 현실을 떠난 화자 자신을 ‘자연에 절로 놓인 말’에 빗대어 현실을 떠났지만 현실과 임금에 대한 근심을 떨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제11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고픔, 추위와 같은 물질적 결핍이나 부귀공명 같은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이다. <제12수>는 때를 만나면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삶을 살고, 때를 못 만나면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대부의 출처관, 그리고 자연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 장유, 「방언」

조선 중기의 4대 문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장유(1587~1638)의 한문 산문이다. 제목인 「방언」은 직역하면 ‘마구 하는 말’을 뜻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만물은 본래 하나여서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데 사람들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생각으로 이기심을 갖고 서로 다투고, 삶과 죽음을 다른 것이라 여겨 삶에 집착하는 까닭은 정신이 몸에 얽매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과 몸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정신이다. 아울러 광대무변한 세상의 크기와 견주었을 때 인간의 몸은 티끌보다 작은 존재이고, 끝없는 시간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 인간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므로 인간의 몸과 삶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몸의 얽매임에서 비로소 벗어나 만물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기심, 삶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글쓴이는 말한다. 다시 말해, 세상 만물은 본래 하나임을 깨달아, 나/남, 삶/죽음과 같은 이항대립의 사고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이기심,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는 인간의 삶을 소에 빗대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다. 화자는 ‘푸성귀와 시냇물과 같은 평범한 먹이를 먹지만 녹음간에 자유롭게 사는 소(송아지)’와 ‘곤 콩대와 삶은 콩과 같은 좋은 먹이를 먹지만 고단하게 일해야 하는 소’ 그리고 ‘잠시 화려한 삶을 살지만 이내 제사에 쓰여 백정의 도끼에 죽음을 당하는 소(희생)’ 이렇게 3종류의 소를 비교하면서 ‘어느 소 되려 할꼬’하고 질문을 한다. 여기서 3종류의 소는 인간 삶의 3가지 유형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화자는 인간을 소에 비유하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

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뜬구름 같은 부귀’, ‘일산 풍월’이 각각 상징하는 세속적 욕망을 좇는 삶과 자연을 즐기며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서로 견주면서 자연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다)의 글쓴이는 몸과 정신을 비교해 몸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을, 광대무변한 세상과 몸을 견주어 우리 몸의 한없이 작음을, 무한한 시간과 인간의 삶을 비교해 삶의 찰나성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정신이 몸에 구속되지 않게 하고,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다) 모두,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어떤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와 (다)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우리는 어리석어 태도를 몰라’라고 할 때 ‘태도’는 묻는 노래의 화자가 강조하는 바로, 입신양명의 삶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답하는 노래’의 화자는 묻는 노래의 화자가 주장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라고 말하며 욕심을 잊고 자연에서 사는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화자(‘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여 상대(‘묻는 노래’의 화자)에게 배우고자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은 사대부가 경세제민(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포부를 이루어 얻는 성취이니, 이는 (나)의 화자가 득군행도를 통해 얻으려는 바와 통한다. ㉡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이니 ㉠을 즐기는 일은 (나)의 화자가 말하는 ‘고반’과 그 의미가 같다. (나)의 화자, 즉 ‘나’는 <제12수>에서 득군행도, 즉 임금의 신임을 얻어 벼슬길에 나아가 도를 실천하는 일에 뜻을 두어야 하지만, 때를 못 만나면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것이 군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을 ㉠과 ㉡을 사용해 표현하면, ‘㉠의 성취에 뜻을 두어야 하지만 때를 못 만나면 ㉡을 이루는 일에서 물러나 ㉡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로 정리된다. 그러므로 ㉢을 이루는 일에서 물러나 ㉡을 즐기야 하는 태도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나)의 ‘나’는 ㉠의 성취, 즉 득군행도가 군자가 뜻을 두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을 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시어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가)에서 ‘묻는 노래’의 화자는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한다며 평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의 자취를 남기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욕망은 인생이 매우 짧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데, 이러한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인생 백년이 풀 끝에 이슬’과 같고 ‘생애는 유한하’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니, 살아 있는 동안 공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따라서 화자가 느끼는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는 ‘묻는 노래’의 화자에 대해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갖는 부정적 시선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묻는 노래’의 화자는 공명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답하는 노래’의 화자에게 그는 굴원이나 유자후처럼 부질없이 세상일로 근심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자일 뿐이다. ‘답하는 노래’의 화자의 눈에 비친 ‘묻는 노래’의 화자의 외롭고 근심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다. ④ ㉠에서 ‘말’은 정치 현실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임금을 걱정하고 세상을 근심하는 화자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말’이 속세를 잊고 근심 없이 사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화자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기한(배고픔과 추위)을 두려워할까’라고 말하며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라는 표현에는 삶이 몹시 짧다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대장부의 할 일이라’에서 ‘대장부의 할 일’은 공명을 이루는 일이다. 두 표현을 통해 화자는 인생이 몹시 짧으니 공명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벼슬길에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관인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2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다)에서 글쓴이는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일찍 죽는 것을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낮과 밤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표현은 삶과 죽음이 서로 다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는 것은 본래 만물이 하나임을 깨달아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게 된 상태를 뜻한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정신이 몸의 열매임에서 벗어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과 몸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정신임을 깨달아, 정신이 몸의 열매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순리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리대로 하면’(정신이 몸의 열매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는 것(만물이 하나임을 알아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게 됨)은 정신이 몸의 열매임에서 벗어나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24 ~ 26] (현대시) (가)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나) 박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가)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이 작품은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진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단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화자는, 돌아가는 팽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팽이가 자신을 ‘비웃는 듯’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성찰한다. 화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고쳐나가야 하는 운명과 책임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팽이와 달리 멈춰 있는 현재의 삶,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지닌 팽이와 달리 주체성을 잃어버린 현재의 삶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화자는 팽이를 삶의 지침을 일깨워 주는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은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박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이 시는 대숲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딸 인혜와 대숲에 간 화자는 대나무에서 물소리가 들린다는 아이의 말에, 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라고 설명한다. 그후 아이가 더 이상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이 아이의 동심은 물론 동심의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었던 생명력이 넘치고 인간과의 교감이 이뤄졌던 대자연의 풍경까지 빼앗겼을

을 뒤늦게 깨닫고는 후회와 자책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2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돌아가는 팽이는 화자에게 고단한 삶,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이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가)는 ‘팽이가 돈다’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시구는 ‘푸른 물소리’인데, 이는 아이가 들은 대나무 속 물소리이며, 화자에게는 자연에 내재한 생명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가)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았고, (나) 역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④ (나)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나’는 대나무 속에서 물소리를 들었다는 아이의 말에, 그 소리의 정체를 땃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텅 빈 대나무 속을 울려서 물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동심을 지닌 아이와 반대되는 시각에서 나온 말이므로, 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현실의 삶에 쫓겨 다니고 다른 짐들보다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나’의 생활이 고단함을 알 수 있다. ② 팽이의 스스로 도는 힘은 주체성을 뜻하는 것으로 팽이가 ‘나’를 울리거나 비웃는 것에서 ‘나’가 팽이를 보며 주체성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애와 자조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은 팽이가 도는 것을 바라보던 화자가 일상의 세계, 자신의 나이와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난 채 순수한 눈으로 팽이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구절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떠올리거나 이를 버린다는 말, 팽이라는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④ 화자가 아이에게 물소리의 정체를 설명한 직후 아이는 동심을 잃어 더 이상 물소리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가 자신의 탓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동심을 빼앗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화자가 대숲에서 푸른 땃가지가 때리는 회초리를 맞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이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7 ~ 30] (현대 소설) 윤홍길, 「집」

이 작품은 1960 ~ 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주하는 집을 상실하는 도시 빈민 가족의 삶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아버지의 고향 친구에게 집을 빼앗기고 셋방을 전전한다. 셋방 살이에 지친 가족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따라 무허가 판잣집을 사게 된다. 판잣집에서 잠시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도시 계획에 의해 판잣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판자촌의 주민들은 철거를 막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철거 당일 집이 헐리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그러한 아버지와 달리 형은 결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결국 철거를 막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2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에서는 아버지가 심 씨에게 속아 집을 빼앗긴 사건을 보여 주는 과거 장면이 삽입된다. 가족은 집을

빼앗기고 셋방을 전전하다 지쳐 판잣집을 사게 되는 데, 이러한 가족의 상황은 집을 빼앗긴 것에 기인하므로 회상 장면의 삽입은 가족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④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다.

㉠은 심 씨에게 속아 집을 빼앗기고 이삿짐을 꾸리느라 큰 혼란에 빠진, 아버지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짓는 표정이다. ㉡은 아버지가 눈앞의 문제 상황을 외면하고 꿈무늬를 빼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형이 짓는 표정이다.

【오답풀이】 ① 가족들은 집을 빼앗기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은 가족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처한 문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한다. ② 아버지가 시장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문제를 회피한 후, 형의 표정을 보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③ ㉡은 집이 철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실패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안 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아버지는 형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지만 어머니는 형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한다.

작업 지휘자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가’라고 말한 것은 논쟁을 통해 형과 작업 지휘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형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형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작업 지휘자의 길을 막고, 이후 작업 지휘자는 어쩔 수 없이 형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 ③ 형과 작업 지휘자는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쟁을 끝마친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우리들은 판잣집에서 살게 된 후 전보다 만족감을 느끼며 더부살이 신세를 동정한다. 이는 셋방이라는 대상에 대한 유대감이 아니라 셋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서이다.

【오답풀이】 ① 심 씨가 고향 친구인 아버지를 속여 집을 빼앗은 것은 집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② 빨래를 마음껏 널고, 물을 얼마든지 길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생활의 기본 조건으로 가족은 집을 산 이후 그것을 충족하게 된다. ⑤ 어머니는 집이 철거되는 것을 보며 이상한 몸짓을 보인다. 이는 어머니가 집과의 유대감으로 인해 집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 34] (고전 소설) 작가 미상, 「홍백화전」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계동영의 아들 계일소와 순경화의 딸 순직소를 주인공으로 하여 결혼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미래의 배우자로 여기던 두 인물은 집안의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혼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여 승상의 아들 여방언이 순직소의 미모에 대해 듣고 순경화에게 혼담을 전한다. 처음엔 계씨 집안과의 오랜 약속과 순직소의 마음 등을 이유로 여씨 집안과의 혼인을 사양하던 순경화는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 여씨 집안과의 혼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여 승상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순직소는 자신이 아니라면 계일지가 좋은 배우자와 혼인하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재색을 겸비한 의양 군주의 딸 설유란을 알게 되고 계일지와 혼인시키고자, 사윗감을 구하는 의양 군주에게 계일지인 척 글을 지어 보내고

계일지로 위장하여 만나 빼어난 용모로 사윗감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계일지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고 아버지인 계동영 역시 오랑캐를 물리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자신의 정체를 의양 군주와 설유란에게 편지로 밝히고 순직소는 떠나고, 의양 군주와 설유란은 순직소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는다. 순직소에 감동한 설유란은 묘책을 떠올려 여 승상의 아들을 황제의 딸과 혼인하게 만들고, 혼인에서 자유로워진 순직소와 계일지, 설유란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31. [출제의도] 서사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주 씨는 순직소가 부친의 말을 따를 것을 바라고 있으며 부친의 명을 따르지 않고 계일지와 함께 야반도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최앵앵과 왕교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순직소는 부친의 편지를 읽고 부친이 백의중군으로 변방에 간 사연과 여 승상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면한 사연을 알고 매우 슬퍼하고 있다. ③ 주 씨는 계일지와 순직소의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순직소에게 부친의 명을 따라 여승상과 혼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남장은 순직소가 계일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로 의양 군주와 설유란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순직소가 남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의양 군주가 계일지를 보기를 위하여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거부만 하다가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순직소는 계일지인 척 의양 군주에게 글을 보냈고, 설유란과의 혼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유란의 정혼을 확인하기 위해 남장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② 계일지인 척하고 글을 보냈던 순직소는 의양 군주의 요구에 병을 핑계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계일지가 병이 난 것은 아니다. ③ 의양 군주는 남자인 계일지를 만날 것을 생각하고 주렴으로 중당을 가린 채 준비한 것이지 남장을 의심하여 순직소와의 만남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주 씨는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 승상의 아들과 결혼하라는 부친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위태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혼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순직소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인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

【오답풀이】

③ 순직소는 계일지가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불행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④ 계일지를 빼어난 배우자와 맺어 주는 것이 계일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34. [출제의도] 갈등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여 승상의 아들과 혼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식 된 도리에 따르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순직소의 마음이 드러난다. 나를 대신하여 계일지에게 다른 배우자감을 추천하는 것은 그와 혼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의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오답풀이】 ③ 마땅한 명분이 없기에 이 자리에서 죽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서 타당한 명분이 있기 전에는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계일지와 맹세한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일지에 대한 애정과 의리가 순직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㉓	36	㉕	37	㉗	38	㉙	39	㉛
40	㉠	41	㉡	42	㉢	43	㉣	44	㉤
45	㉥								

35. [출제의도] 음운 체계 및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거센소리되기의 경우, 순행적 거센소리되기와 역행적 거센소리되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오답풀이】 ② 자음군 단순화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일어난다. ④ ‘니’, ‘귀’가 있는 단어는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표준 발음을 이해한다.

‘옴는[음는]’은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표준 발음법 제18항에서 받침 ‘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8항이 적용되는 예로 ‘옴는[음는]’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창밖[창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다. ② ‘읽고[일꼬]’를 발음할 때, 거센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끓고[끈꼬]’는 순행적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표준 발음법 제12항의 [불임 1]은 역행적 거센소리되기와 관련된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

ㄹ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ㅁ의 안긴문장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ㄹ과 ㅁ의 안긴문장에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가 있다고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과 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과 ㉡은 파생어 용언으로 모두 어간이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과 ㉡의 어간이 접두사와 어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과 ㉡은 나무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가 각각 조사 ‘마다’, ‘와’와 결합한 것이고, ㉢과 ㉤은 하루를 의미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가 조사 ‘도’, ‘은’과 결합한 것이다. 이 단어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조사 ‘와’와 결합할 때 ‘나모’, ‘ㅎㄹ’의 형태로 나타나고,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남’, ‘홀ㄹ’의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 ~ ㉡에 들어갈 말은 각각 ‘나모마다’, ‘나모와’, ‘ㅎㄹ도’, ‘홀ㄹ’이다.

40. [출제의도] 매체 정보의 전달 방식을 이해한다.

(가)의 ‘진행자’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뿐, 방송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진행자’는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실시간 대화창에 글을 올리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③ (가)에서 ‘진행자’는 자신이 폭포를 봤던 경험을 떠올리며 ‘여행가’가 소개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④ (가)에서 ‘여행가’는 주상절리길이 총 길이 3.6km, 폭 1.5m의 잔도라고 설명함으로써 방송에서 소개하는 대상의 규모를 시청자가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⑤ (가)에서 ‘진행자’는 ‘잔도’를 궁금해하는 ‘코코넛’의 글 내용을 ‘여행가’에게 전달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여행가’는 ‘잔도’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41. [출제의도] 매체 참여자의 수용 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산토끼’는 지역 상품권을 받아 사용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였다. 또한, △△도청 누리집에서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것도 언급

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글향’은 ‘여행가’의 추천을 믿고 가 보겠다고 하였으나, ‘여행가’가 소개한 내용의 출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② ‘몽계구름’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방송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③ ‘야옹’은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방문 후기를 보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없다. ⑤ ‘하회탈’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화장실 위치에 대한 정보는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가)에서 ‘여행가’는 다리에서 볼 수 있는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다리에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하면서 ‘화강암교’와 ‘현무암교’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나)에서는 두 다리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란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행사 일정에 포함된 공간인 유리 전망대와 폭포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조사 ‘의’는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격 조사이다. ㉠에 있는 격 조사 ‘의’는 앞에 있는 체언이 뒤에 있는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여행자를 섭외하도록 한 주체가 시청자임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한다.

㉡에서 ‘웅범’은 답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준’의 말에 동조하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면서 ‘요청 사항’ 게시판을 남기자고 건의했을 뿐,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볼 수는 없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다.

‘지수’는 ‘오늘의 식단’에 중식만이 아니라 석식 식단도 함께 보여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앱 화면에서 ‘오늘의 식단’에 중식 식단과 석식 식단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리’는 식단이 월간 식단표와 달라져도 알려주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했으므로, 석식 식단을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